

#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전북자치도, 11월까지 확대 운영... 릴레이 문화행사·문화취약지역 찾아가는 공연·체험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4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매월 1·3주차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과 연계해 문화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정음,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9개 시·군을 중심으로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무주 산골마을 극장, 진안 농촌마을 영화 상영, 순창 산골 음악회, 고창 농악 한마당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가 주민 생활권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2·4주차에는 도내 85개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문화행사가 운영된다. 각 시설은 여건에 맞춰 수요일을 중심으로 저자 초청 강연,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 도서관의 독서 체험과 작가 강연, 군산 근대문화유산 무료 관람, 남원 김병중미술관의 체험형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거점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확대 시행 첫날인 4월 8일에는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남원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 체험 및 미술 전시회

가, 김제에서는 풍물놀이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정음과 진안 등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무주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도는 이번 확대를 통해 한옥, 한복, 한지 등 전통자원과 판소리, 농악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예술가와 문화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문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도 문화관광재단의 총괄 컨설팅을 통해 프로그램 완성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임실군,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선정

임실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공모한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최종 선정돼, 8일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한다.  
임실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7,2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2,200만원 등 총 1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본 사업은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임실군 지회(이하 임실예총)가 수행단체로 참여한다. 임실예총은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임실의 자연과 문화 자산을 활용한 밀착형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4월은 특별주간으로 지정해 8일부터 매주 수요일 공연을 진행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례화해 운영한다.  
공연장소는 복합문화공간인 문예답터를 비롯해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출렁다리 및 문화소의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특색에 맞춘 맞춤형 공연을 펼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제50기 시민도예대학'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 남원시, 전문 도예 인재 양성 나선다

**'제50기 시민도예대학' 개강**  
남원시가 유구한 도자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감각을 갖춘 도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50기 시민도예대학'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50기 수강생 모집에서는 지난 3월 16일 접수 하루 만에 입문·블레·응용과정은 물론, 올해 신설된 전문가 양성과정까지 전 과정이 조기 마감되면서 도예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열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올해 교육의 핵심은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로, 시는 입문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이어지

는 단계별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입문과정은 도자 이론과 기초 실기를 통한 기본기 함양 △블레과정은 성형 기법을 활용한 생활도자 제작 실습 △응용과정은 기능성과 조형성을 결합한 심화 창작을 통한 전문 창작 역량 향상에 집중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전문가 양성과정은 6개월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도자공예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다.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병행해 단순 취미를 넘어 전문 도예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 도예 전통을 잇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7부 '강패와 고아' (1)

## 배순옥 씨는 누구지요?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루이자 수녀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어느덧 밤 11시가 지나 있었다.  
수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동식은 묘한 감상에 사로잡혀 울적했고 눈물이 솟구치려 하는 걸 참느라 힘들었다. 건달 체면이 말이 아니다.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변한 것일까. 나이 탓일까. 서른다섯이던 인생의 뿌리를 찾아



생생형 시로 제작된 이미지

루이자에게 인사를 하고 예배당을 나와 차에 타고서도 동식은 쉬 아무디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강남준과 박명희가 동식을 어딘가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동식을 끌고 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했다. 그들은 동식을 과거로 데려가고 있었다. 동식 자신의 과거를 추적해보라고 속삭이며 유혹하고 있었다.  
동식은 유혹에 사로잡히려는 자신을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다. 내 출생에 대해, 내 부모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가? 관심 없었다. 아니, 일부터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다. 그들이 미웠고 저주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낳았으면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들이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인해 차가운 한겨울 들판을 방황하는 들개처럼 살아왔다.  
동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들이 미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다. 쓰레기장을 뒤지는 들개처럼 살아왔던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저런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잠시 후 동식은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내게 원래부터 부모는 없었다. 지금 그만 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아니다. 그들을 찾아야 한다. 찾아서 욕을 실컷 해주어야겠다.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입으로 뱉어왔던 욕이란 욕은 모두 가져다 그들에게 퍼부어주자. 나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세상에 던져버린 그들에게 수이 후련하게 욕을 퍼부어주자.  
다음날 봉사활동이 끝난 뒤 동식은 고향

행복원을 찾았다.  
"여기에는 배순옥 씨라고 적혀 있네요."  
직원은 두꺼운 신상기록 장부를 펼쳐보고는 말했다. 동식은 자신을 이곳 행복원에 처음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이다.  
"배순옥 씨가 누구지요?"  
"모르겠어요. 여기 관계 란에 아무런 말도 써있지 않네요."  
"그 사람 주소는 있나요? 연락처는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름만 써 있어요. 배순옥 씨가 몇 번 찾아왔다고 하는데 동식은 전혀 기억이 없네요."  
직원은 동식의 눈치를 보면서 안타까운 듯 말했다.  
"어떻게 하면 배순옥 씨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강동식 씨를 배순옥 씨가 데려왔던 당시 근무했던 분들은 지금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벌써 35년 전이니까요."  
배순옥이 동식을 고향행복원에 맡기고 몇 번 찾아왔다고 하는데 동식은 전혀 기억이 없다. 배순옥은 누구일까. 배순옥이 동식의 친모일까.  
동식은 강남준과 박명희의 이야기에 함몰되어 있었다. 느닷없이 배순옥이 나타났다. 배순옥은 강남준이나 박명희와 관계가 있는 인물일까 아니면 무관한 제 3의 인물일까.  
강남준과 박명희는 이 세상에 없다. 루이자 수녀의 말에 의하면 박명희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했다. 물론 박명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맹인 무당은 박명희일 확률이 높다.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